

# 삼성정밀화학, 선박용 도료 세계로!

## SigmaKalon과 5월경 합작기업 설립 ... 메셀로스 · DMF 경쟁력 강화

삼성정밀화학이 세계적인 도료 전문그룹인 네델란드 SigmaKalon과 신규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.

삼성정밀화학은 2월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정밀화학과 SigmaKalon가 각각 40대60의 비율로 출자해 2004년 5월까지 합작기업 설립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. 양사는 2003년 3월 양해각서(MOU)를 맺은 이후 사업가치 검토 및 실사를 진행해왔다.

이에 따라 삼성정밀화학의 도료사업은 ▷유럽 선진기업의 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선진제품의 직접 생산·판매 ▷기존 SigmaKalon의 국내 공급물량의 직접 생산·판매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 ▷대량구매에 따른

원가절감 및 글로벌 영업력이 필요한 선박용 도료 시장에서의 마케팅 강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고부가가치 도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.

또 SigmaKalon과의 합작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자산매각 등을 통한 순투자자금 회수 등의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성공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메셀로스(시멘트 물성 향상제), DMF(합성피혁 원료) 등 기존의 핵심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소재 등 신규사업에 경영역량을 더욱 집중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.

SigmaKalon은 네델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40여개국에 종업원 1만명, 매출액 17억유로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료 전문그룹으로 특히 네델란드, 벨기에, 프

삼성정밀화학 이용순 사장(오른쪽)과 SigmaKalon의 Pierre-Marie De Leener 사장

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건축용 도료부분 2위를 차지하고 있다.

SigmaKalon은 선박용 도료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세계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,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생산·판매 기반이 취약해 시장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23>